114세 할머니 한표 행사…섬주민 해경 경비정 타고 투표

투·개표 이모저모

기상악화 뱃길 끊겨 발동동

○…기상 악화로 뱃길이 끊겨 발을 동동 구르던 신안 섬주민들이 해양경찰의 도움으로 투표종료 1시간 전 가까스로 기표.

9일 오후 6시까지 강우와 높은 파고로 투표장이 있는 하태도 제6투표소로 가지 못하고 발길이 묶인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중태도 주민 27명이 목포해경에 도움을 요청, 이날 오후 7시께 경비함정을 타고 투표소에 도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

상태도 이장 김태묵씨는 "파도가 높아 선박을 댈 수 없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주민들은 점심시간대까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며 "다행히 해경의 도움으로 종료 1시간 전에 투표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

"손주가 잘 사는 나라 되길"

○…1903년 태어난 114세 할머니가 대한민국 19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

광주지역 최고령 유권자인 박명순(여·114) 할머니는 9일 오전 10시15분께 문흥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방문해 투표.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박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이 나라 국민으로서 투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내 손주가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

넘어져 다쳐도 일어나 투표

○…투표소를 찾은 70·80대 유권자들이 투표 도중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참정권은 정상적으로 행사.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3분께 목포시 상동 제2투표소 상동초교 체육관 기표소에서 주모(여·77)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지만, 다시 일어나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뒤 병원으로 이송.

앞서 오후 1시19분께 진도군 의신면 제2투표소에서도 이모(여·83)씨가 투표 도중 넘어졌는데, 주위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기표한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복어 마비 형제 치료후 한표

○…복어를 먹은 뒤 얼굴 등에 마비증상을 보인 형제가 해경 덕분에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투표에 참여.

완도 금일도에 사는 A(42)씨와 동생 B(40)씨는 지난 8일 밤 10시30분께 집에서 복어찜을 직접 요리해 먹은 뒤 팔과 안면부 등에 마비증세를 보이자 해경에 도움을 요청, 해경 경비함과 119구조대에 의해 강진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투표일인 다음날 오전 귀가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

A씨 형제는 "해경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해경에 거듭 감사.

고려인 10여명도 투표 참여

○…러시아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들의 항일투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온 고려인 10여명도 이날 각자 해당 투표소를 찾아 고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참여.

북구 양산동 제5투표소를 찾은 김솔다(여·39)씨는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며 "새 대통령은 다문화여성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3000여명으로, 대부분 국적 취득이 안돼 이날 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고려인들에게 잘해줄 대통령을 뽑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차기 대통령은 내 손으로 직접 뽑고 싶다"고 희망.

분류기 오작동 한때 개표 중단

○…광주시 서구 화정동 염주종합체육관 북구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3대가 오작동해 개표가 중단됐다가 30여분만에 재개.

북구개표소는 개표 시작 10분만이 이날 밤 9시10분께 분류기가 유효표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개표가 중단됐는데, 오류가 반복되자 참관인들은 "왜 분류가 제대로 안 되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한때 개표장이 어수선.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분류기에 후보자 2명의 사퇴 사실을 입력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1명만 입력돼 오류가 발생했다"며 개표 중단 29분만인 이날 밤 9시39분께 개표를 재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동 빛고을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권 교체 열망' 광주 투표율 82% 전국 최고

전남은 78.8% 제주 72.3%로 최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가 8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전체 선거인수 4247만9710명 중 77.2%인 3280만85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 75.8%보다 1.4%P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선거인수 116만6901명 중 82.0%인 95만7318명이 투표한 광주가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 80.4%보다 1.6%P 높은 기록이다. 이어 세종(80.7%)·울산(79.2%)·전북(79.0%)·전남(78.8%) 등의 순이었다. 전남지역 18대 대선 투표율은 이번 대선보다 2.3%P 낮은 76.5%였다.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선거인수 51만8000명 중 72.3%인 37만4578명이 투표한 제주였다.

광주 사전 투표율(33.67%)은 세종(34.48%), 전남(34.04%)에 이어 3위였다. 야권 텃밭 광주의 높은 투표율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80%를 넘는 80.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낙선한 문재인 후보의 광주 득표율은 91.97%에 달했다.

최근 몇 차례 대선과 비교해 지지율 쏠림현상이 완화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펼친 것도 투표율을 올리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광주·전남은 기존에도 대선 투표율이 대체로 높았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광주(64.3%)는 6위, 전남(64.7%)은 4위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한 1997년 15대 대선 때는 광주 89.9%, 전남 87.3% 등 90%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면서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화순·장흥서…남평문씨 광주·전남 종친들 환호

개표 지켜보며 당선 기원

문 대통령 한때 전남도민

문재인 대통령의 본관인 남평문씨(南平文氏) 광주·전남 종친들도 당선 소식에 환호했다.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에는 남평문씨 시조인 무성공 문다성(文多省), 문익점 등 시조부터 5대조까지의 위패를 모신 장연서원(長淵書院)이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장연서원을 방문하는 등 기회있을 때마다 조상을 기려왔다.

또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틈나는 대로 서원을 방문해 종친들에게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화순, 장흥 등에는 남평문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이나 투·개표 과정에서 남평문씨 종친들은 겉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문 대통령을 성원하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이 평소 신중한 성격인 점을 감안해 문중 사람들도 조용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투·개표가 이뤄진 9일도 분위기는 별반 다름이 없었다.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장연서원이 외진 곳에 위치한 탓인지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북적거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남평문씨 집성촌 가운데 한 곳으로 80여 가구가 모여사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서는 종친들이 함께 응원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개표가 진행된 9일 늦은 밤 수십명의 종친들이 천암리 마을회관에서 함께 TV로 문 대통령의 득표 상황을 지켜보며 당선을 기원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문 모(49)씨는 "문 대통령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좋은 정치로 국민의 박수를 받는다면 더 이상 영광이 없을 것"이라며 감격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때 주민등록상 전남도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재학중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집징돼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마친 문 대통령은 1970년대 말 제대 이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통신이 발달하지 못해 예비군 훈련 통지가 안 돼 불참할 경우 처벌을 받았던 탓에 대흥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주소지를 삼산면으로 옮겨 대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손영철기자 ycson@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남평문씨 종친들이 9일 밤 마을회관에 모여 대선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예측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r